



9월 8일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말했어요.

“마리아야,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지요?”

“하나님께서 아기를 낳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어느 날,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요셉아, 마리아를 데려와 아내로 삼아라.”

요셉은 하나님 말씀대로 마리아와 결혼했어요.



아기가 태어날 즈음,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있었어요. 베들레헴의 여관마다 사람들이 많아 설 곳이 없었어요. 마리아는 할 수 없이 다른 곳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곳에는 아기를 눕힐 곳도 없었어요. 그래서 *구유에 아기를 눕혔어요. 천사들이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목자들은 요셉과 마리아를 찾아갔어요. 아기 예수님을 보고 무척 기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전부터 약속하셨습니다.

*구유 : 가축들에게 먹이를 담아 주는 그릇.



*동방박사들은 빛나는 별을 보았어요.

“아기 왕이 태어나셨어. 자, 왕께 드릴 선물을 가지고
저 별을 따라가자!”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에게 갔어요.

“아기 왕이 태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헤롯 왕은 다른 사람이 왕이 된다는 것이 싫었어요.

‘그 아기를 죽여야겠다!’

헤롯 왕은 동방박사들에게 몰래 얘기했어요.

“아기가 있는 곳을 찾으시면 나에게도 알려주세요.”

*동방박사 : 먼 나라에서 밤 하늘의 별을 연구(공부)하던 사람.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왔어요.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었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렸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동방박사들의 꿈에 나타났어요.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하니,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려 주지 마라.”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을 나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경배 : 존경하여 겸손히 절함.

생각하는 아이

할머니한테 편지가 왔어요. 편지에는 할머니가 곧 오신다고 써 있어요.

남우는 너무나 기뻐요. 그날부터 할머니가 오시기를 매일매일 손꼽아 기다렸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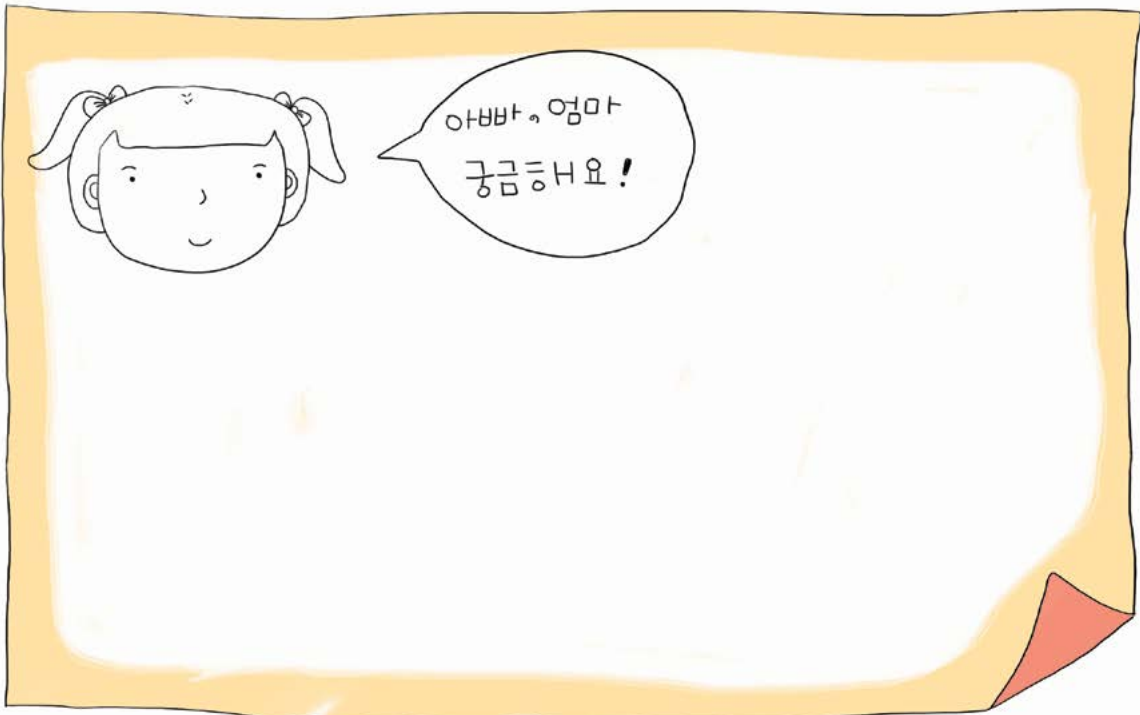


할머니가 오신다고 한 날이 되었어요.
아침부터 남우는 대문만 쳐다보면서 기다렸어요.
점심시간이 지나도 할머니는 오시지 않았어요.
점점, 남우는 할머니가 오시지 않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대문이 열리고
약속대로 할머니가 오셨어요.
남우는 할머니를 만나서
너무 반가웠어요.



생각하는 아이

하나님과 약속을 해 보았나요? 약속은 하나님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과 부모님은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했는지 한번 여쭙 보세요.



나도 하나님과 약속 할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할까요?



즐거움은 **활동**입니다



그림 안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
있어요. 모두 찾아 보세요.





마음속 암송

따라 쓰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

다시 쓰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생님께

부모님께